

제 15장 장애를 넘어서: 예로센코 (Vasilli Yakovlevich Eroshenko)

◆1교시 : 예로센코(Vasilli Yakovlevich Eroshenko) 1

▲예로센코의 삶 1



오늘 오랫동안 아나키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예로센코의 경우 공부를 해 오면서 같이 느꼈던 것들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면 좋겠다고 하죠.

연대적으로 제일 나중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 루신이나 오스기 사카에와 교류를 하면서 1920년 아나키즘의 황금기를 살았던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박노자 교수가 예로센코의 글을 쓰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죠.

일본에서는 60년이상 예로센코를 연구한 사람들, 말하자면 향토사학자같은 사람이, 예로센코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민담, 우화를 수집했었고요,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영향을 받았죠. 일본에 오게 전에 동남아시아쪽으로 왔는데, 일본어로 예로센코가 썼던 동화, 소설 등이 다 출판되지 않았다.

다 출판되지는 않았고, 1920년대 출판된 것이므로 절판되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로센코의 작업을 쫓아가는데 평생을 바친 직장인 일본인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예로센코에 매력을 갖게 되었나하니 2000년대의 인터뷰에서, 예로센코의 매력 때문에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흠어졌던 에스페란토로 쓴 거, 일본어로 쓴 거, 아직도 모으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취미는 고서점에 가서 책더미속에 묻혀있는 것들,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나키스트의 경우 Do it yourself, Do it myself 자기의 사상을 출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모가 작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읽히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몇 천 종, 몇 만 종이 되는 거죠. 풀뿌리 조직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고, 예로센코는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살아있죠.

▲예로센코의 삶 2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제한적인데, 예로센코가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 이야기도 가슴이 아픈데,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쫓아낼 때 쓰는 방법, 인간취급을 안하고, 동물보다 못한 짐작 취급을 하죠. 예로센코가 살고 있던 곳에서 수용소로 끌고 가고 퇴거명령이 내려지니까 본국인 러시아로 보냈죠.

예로센코가 동아시아로 올 때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온 거 같아요. 일본으로 왔다가 나이가 10대 였는데,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때였지만 아직 ана키스트는 아니었던 때였죠.

에스페란토를 예로센코가 배웠던 것은 러시아에서 있었을 때, 톨스토이주의자였던 안나 사라포바에게 배우고 나서인데, 영국에 유학가서 음악도 배우고, 음악가이자, 소설가, ана키스트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에스페란티스토들도 예로센코의 세계주의자, 에스페란티스토로서의 측면을 본다고 했었고, 예로센코가 사회주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연을 하고 모임을 조직하다가, 일제의 눈에 찍혀 강제 추방을 당하는데, 외국인이니까.

블라디보스톡, 1920년인데 쫓아낸 해가, 혁명 러시아 상황이었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ана키즘 운동을 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만주를 떠돌다가 처음에 상해로 가서 몇 개월간 지내다가 중국 에스페란토 활동을 하던, 최원배, 북경대학 총장인데, 루신의 동생인 주작인[Chou Tsojen] 의 도움으로 북경에서 살게 되요.

루신의 동생 주작인의 경우, ана키즘과는 거리가 멀었고, 에스페란토를 배우던 사람이었는데, 예로센코를 에스페란티스토라고 했죠. 어렸을 때 시각을 잃게 되는 이야기는 잘 나와 있어요. 나오는 사진이 도쿄 근대 미술관에 예로센코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왜 일본에 근대 미술하는데, 서양인이 서 있는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나카무라 쓰네라는 사람이고, 일본에서 국보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로센코의 경우 국립 근대 미술관이라는 일본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예로센코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방면에서도 교류나 영향을 지식인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 국보처럼 대접을 받았고요. 인터넷에 쳐보면 이미지 파일로 있어요. 소위 말하는 천재였죠.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할머니가 기독교를 맹신했던 사람인데, 예로센코가 4살 때 홍역으로 고열로 불덩이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될 것이라라고 생각했죠.

계속 기도했는데도 며칠 동안 아이가 낫지 않았죠. 시력을 잃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우크라이나 지역, 제정 러시아에 포함되어 있었구요. 음악에도 심취를 했었고, 문학 예술 전반에 감수성이 뛰어나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으로 갔다고 하고요, 거기서 음악공부를 하다가 에스페란토를 영국가기 전에 5년 동안 배워서 유창하게 되었죠.

▲예로센코의 삶 3

유학후 러시아로 돌아와서 모스크바에 있던 일본 유학생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았대요. 일본어를 잠시 배우면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져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와서 다시 일본으로 온거죠. 1914년 세계 대전일 때인데, 전화(典貨)를 피해 예로센코의 경우 극동 아시아로 왔을텐데, 23,24세였는데,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에스페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동경에 있는 시각 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글을 쓰고했죠.

20대 때는 ана키즘과 직접적 연관은 없죠. 언제 ана키스트가 되었나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박노자의 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로센코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 추방당하고 러시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깐. 언제 ана키스트가 되었나하니, 오스기 사카에와 만나면서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다고 하죠.

아나키즘을 배우기 전, 이후에도 동화작가로서의 삶, 에스페란토티스토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래되어 온 이야기에 예로센코가 관심이 많은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는 어떤 전래 이야기가 있나 수집하러 동남아시아로 돌아다니죠. 미얀마, 태국으로 다니죠.

6개월 혹은 더 길게 시각장애인들의 학교에 취직하면서 머물면서 그 나라의 전통 음악이나 민담을 수집해서 나름대로 글을 써서 남기는 거죠. 구전되어 왔던거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ана키즘을 접하게 되는데,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국에도 ‘선녀의 나뭇꾼’이 있는데, 예로센코가 30대 까지 중국에 머물다가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도 있고 유럽으로 가고 다시 돌아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나 교육 방법을 개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에스페란토로 한국의 민담을 써서 알리는 작업을 했죠.

일본에 널리 읽히는 동화는 일본어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써서 지금도 일본아이들에게 읽고 있는 동화작품이래요.

◆2교시 : 예로센코(Vasilli Yakovlevich Eroshenko) 2

▲예로센코의 삶 4

자기 고향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발랄라이카라는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고 동화를 들려주고 아나키즘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오스기 사카에와 성격이 다르죠. 방랑자와 시인, 예로센코의 시와 문학작품들도 소개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타하나, 맹인용 타이프라이터, 무한한 사랑, 아나키즘, 차별없는 평등, 예로센코를 설명하는 키워드이고, 짐도 안가지고 다녔죠. 발랄라이카라는 민속악기, 맹인용 타이프라이터만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부유해서 집에서 돈을 부쳐주고 하는데, 20대가 넘어서 부쳐주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동화집이 몇 번 출간이 되었는데, 강제 추방된 후라 인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로센코의 삶 5

예로센코가 고향에 돌아와 평온하게 살다가 죽었겠거니 했는데 소련 정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예로센코가 머물 때 일본인 아나키스트와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지내다가 강제 추방 되었을때 일본인 친구들이 염려를 했다고 해요.

일본인 경찰이 악명높죠. 예로센코 관련 이야기를 일간지나 주간지에 일본인 지식인이 기고했는데, 예로센코가 추방되서 블라디보스톡에 예로센코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고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예로센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활동, 국가를 부정한 활동이었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주의자를 자처했어요.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력다툼이 벌어졌던 때였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곱게 보지 않았죠.

타고르(Ravindranath Tagore)와 예로센코와 벌였던 논쟁도 유명한데 타고르는 벵골 민족주의에 기반한 사상인거죠. 타고르의 경우요. 영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인도인들, 주로 벵골중심이었죠. 나섰던 논쟁이 여기에도 책에도 나오고, 예로센코의 얘기할 때 나오는데, 동양 정신의 정수인 일본 정신, 서양인들이 오리엔탈리즘으로 일본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타고르도 일본의 민족주의가 인도 벵골민족주의가 일치하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던 예로센코가 일어나 물질의 동서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의 이야기는 논리의 구조는 같다. 당시의 사회진화론적인 생각이죠. 잘난 민족과 못난 민족이 있다는 거죠. 힘을 키워서 힘을 얻게 된다면 자기 민족이, 인간 전체로 보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흑인들은 발달정도가 낮은 인종이라 생각했고, 이것을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택받은, 문명이 발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외세의 침략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동아시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주의의 길로 가죠. 강한 나라와 손잡고 국력을 키우고, 신채호의 경우도 민족주의에 반대하고 직접혁명의 아나키즘 운동을 만주에서 벌인거요.

이것은 전세계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옛날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나와 있었고, 예로센코도 타고르와 이런 논쟁을 벌였고, 다른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과 교류를 하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뎌내지 않았나 하네요.

신채호와 교류를 했던 사람들, 신채호의 공식홈페이지, 신채호를 거론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조선인들, 한국인들 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채호와 교류를 했던 사람들은 예로센코를 비롯, 민족이나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교류를 했었고,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요, 민족, 국가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데이빗 그레이버(David Graeber)

8주간에 진행되었던 아나키즘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여러지역을 여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아나키스트들이 나타나서 1920, 30년과는 다른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데이빗 그레이버(David Graeber)는, 인류학자로, 교수직을 빼앗겼기 때문에 인류학자로 꼽는데, 그 사람도 2006년에 한국에 왔어요.

마다카스카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키적으로 살고 있는가로 박사학위로 받았죠. 인류학계에 충격을 주었고요, 천재로 받아들여져서 하버드 졸업 후 예일대 교수로 강의하는데, 교수이지만 아나키스트이기도 해서 굶직한 사건이나, 혹은 사소한 사건에 부정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연대를 해요.

예일대에서 교수에서 쫓겨난 것은 대학에서 아나키스트활동을 한 것을 안중계 여겼죠. 교수는 3,4년에 재임용 심사를 하는데, 그때 재임용의 기준은 차고도 넘치죠. 평생 자기 정년을 보장해도 인류학계는 알아주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해고를 해서 다른 작은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죠. 영국에서요.

예일대 학생들이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더라고요. 예일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대학원생들이 잘못된 행정이나 높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서 교내 시위를 해요. 만난 적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주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쫓리죠.

데이빗 그레이버 교수가 복학시키라고 교수운동을 연대하다가 쫓린 것 같다. 재미있는 책들도 많이 썼어요. ана키즘의 폭을 넓힌 사람이에요. 첫 강의를 루시 파슨스로 했는데, 미국 ана키스트들이 만든 노동조합, 국제 노동자단체(IWW)라고 하죠. 한국산업노동자연맹이라 불리우는데,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는 유명한 ана키스트교수교요. 모두 회원이에요.

흐름들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19세기 말부터 이어져왔는데, 한국은 단절되어서 지금은 다시 복원시키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있죠. 더 재미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서 억압적인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